

트로트만 불러야 영탁인가요?

영탁, 데뷔 19년만에 첫 쇼케이스 새 미니음반 '슈퍼슈퍼' 발매 신보, R&B·발라드 등 5곡 수록



가수 영탁이 3일 오후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열린 미니앨범 '슈퍼슈퍼' 발표회에서 신곡 '슈퍼슈퍼'를 열창하고 있다.

“트로트만 해야 영탁인가요?” 가수 영탁은 새 미니음반 '슈퍼슈퍼' (Supersuper) 발매를 앞두고 슈퍼주니어의 김희철과 이특을 만나 이렇게 말했다. 댄스 장르 타이틀곡을 들은 이들이 “이건 트로트가 아닌데?”라는 반응을 보였기 때문이다.

영탁은 3일 오후 서울 용산구에서 열린 '슈퍼슈퍼' 발매 기념 쇼케이스에서 이 일화를 전하며 “뒤늦게 많은 사랑을 주는 팬들이 생겼는데, 노력해서 조금이라도 더 재미있고 신선한 느낌을 주고 싶은 책임감이 있다”고 말했다.

영탁은 “정규나 미니음반을 낼 때 모든 곡을 트로트 장르로 채우는 게 더 어렵다”며 “내가 선배·동료, 혹은 작곡가 형님들과 십수 년 작업하고 연습한 곡은 다양한 장르였다. 팬들 사람이 있으니 할 수 있는 것을 들려드리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도 말했다.

영탁은 지난 2005년 영화 '가문의 위기' OST에 참여해 가수 생활을 시작한 이후 오랜 기간 무명 시기를 겪었다. 2016년 트로트 가수로 전환한 그가 2018년 발표한 '니가 왜 거기서 나와'는 입소문을 타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중심으로 좋은 반응을 얻었다. 그는 2020년 '내일은 미스터트롯'에서 준우승을 차지하며 일약 톱스타로 도약했다. 이후 2022년과 지난해 나온 그의 정규 1·2집은 첫 주에만 각각 53만장과 62만장이 팔리나갔다.

이날 행사는 영탁이 가수 생활 19년 만에 처음

으로 여는 쇼케이스다. 영탁은 이번 음반에서 댄스, 트로트, 발라드, 브릿팝 등 다양한 장르를 넘나들었다.

신보에는 동명 타이틀곡 '슈퍼슈퍼'를 비롯해 R&B 장르의 '사막에 빗어', 국악풍 인트로와 고전 시가 같은 노랫말이 어우러진 트로트 '사랑옥', 감성 발라드 '가을이 오려나', 밴드 사운드의 브릿팝 '브라이트' (Brighten) 등 다섯 곡이 담겼다.

영탁은 “(음반 작업에) 박차를 가한 것은 올해 2월께 떠난 영국 여행”이라며 “조그만 건반과 장비를 챙겨 갔다. 가벼운 마음으로 출발했는데, 그때가 (이번 음반의) 시발점이지 않나 싶다. 부끄럽

지 않은 음악을 만들려 했다”고 말했다.

타이틀곡 '슈퍼슈퍼'는 영탁만의 힘차고 유쾌한 에너지가 돋보이는 댄스곡이다. 소년 만화의 주인공 공이 된 듯한 기분이 드는 복고풍 신시사이저 사운드에 누구나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훅(Hook) 강한 인상을 주는 후렴구이 더해졌다. 영탁은 이 노래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진짜 나의 꿈을 찾아보자”는 희망의 메시지를 전한다.

그는 팬들에 대해서 “내게 가족”이라며 “오래래 함께 가자고 약속하고 응원하는 가족처럼 소중한 존재, 살아가는 목표이자 원동력”이라고 애정을 나타냈다. /연합뉴스



박진연의 문화카페

“내가 만든 도자기를 모든 시장에서 볼 수 있으면 좋겠다. 그리고 부러타뉴 지방의 마을이나 다른 어디에서나 여인들이 우물에 물을 길어 갈 때 내가 만든 물병을 들고 갈 수 있으면 좋겠다.”

전시관에 들어서자 화이트 벽면에 피카소 미술관의 큐레이터 요안 포블라르가 쓴 글이 눈에 띈다. 천재화가 파블로 피카소(Pablo Picasso 1881-1973)가 생전 한 말이라고 믿기지 않을 만큼 소박하기 짝이 없다. ‘아비뇰의 처녀들’, ‘게르니카’ 등 현대미술사의 문제작들을 그린 거장이었지만 자신이 직접 구워낸 도자기들이 서민들의 삶과 함께하기를 희망한 것이다.

화가 피카소로만 알고 있는 이들에게 ‘도예가

도사로 큰 인기를 끌고 있기 때문이다.

전시장을 가득 메운 그의 손때 묻은 원고와 애니메이션, 드라마, 영화로 재탄생한 대표작 등 2만 여점을 보면 ‘중이의 영웅’에 대한 경외감이 절로 느껴진다. 무엇보다 인상적인 건, 두 세대의 문장과 한 두점으로 그린 ‘영만의 하루’다. 작업 실로 출근해 하루 종일 만화를 그린 후 다시 책상앞에 앉는 게 전부이지만 소소한 일상에 대한 단상들은 미소를 머금게 한다.

광주와 광양에서 열리고 있는 피카소전과 허영만전은 공통점이 있다. 다름 아닌 제15회 광주비엔날레(GB·9월7일~12월 1일)와의 ‘시너지’를 노린 기획전이라는 것이다. 사실, 미술애호가들

허영만, 피카소 그리고 GB

피카소는 ‘신선한 충격’이다. 그래서일까. 국립아시아문화전당(ACC) 문화창조원에서 열리고 있는 ‘이전회 컬렉션: 피카소 도예전’ (7월16일~9월29일)은 개막과 동시에 거장의 또 다른 면모를 엿보려는 관람객들로 연일 장사진을 이루고 있다.

전남도립미술관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접할 수 있다. 여수 출신의 석각 허영만(75) 선생의 만화 인생 50년을 되돌아 보는 특별 초대전 ‘중이의 영웅, 칸그의 서사’ (8월6일~10월20일)가 성황리에 열리고 있어서다. 특히 관람객들 사이에는 20~30대의 MZ 세대가 눈에 많이 띄어 흥미롭다. 그도 그럴 것이 요즘 젊은이들에게 허영만 선생은 불법 보다는 부업으로 더 유명(?)하다. ‘식객’, ‘타짜’, ‘오!한강’, ‘각시탈’ 등 내놓은 작품마다 대박을 낸 만화계의 거목이지만 6년전 한 TV 프로그램의 ‘백반기행’을 맡으면서 맛집 전

에게 광주비엔날레는 설레임의 대상이다. 특히 타 지역에서 광주를 찾는 이들에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문화나들이다. ACC와 전남도립미술관이 비엔날레 관람객들을 겨냥해 피카소와 허영만전을 아슬아슬하게 준비한 것도 그 때문이다. 관람객 입장에서 비엔날레 이외에 색다른 볼거리를 두배로 즐길 수 있다는 점에서 일석이조다.

‘판소리-모두의 울림’을 주제로 내건 광주비엔날레가 오는 7일 개막을 시작으로 90일 간의 대장정에 돌입한다. 올해로 창립 30주년을 맞는 광주비엔날레는 판소리를 모티브로 인류 보편적인 이슈들을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소리의 풍경화’(Soundscape)를 선보인다는 점에서 기대를 갖게 한다. ‘비엔날레도 보고, 피카소도 만나고’, ‘울기를 광주-전남에서 펼쳐지는 미술축제의 주인공이 되는 건 어떨까.’

〈문화·여행국장, 선임기자〉

대학생 배우 50명이 들려주는 ‘찐’ 청춘 이야기

뮤지컬 ‘상상 유니-브로드웨이...’ 6일 아시아문화전당 예술극장2



뮤지컬 '상상 유니-브로드웨이 청춘일기' 지난 공연 장면. <광주청년센터 제공>

“상상하는 일이 눈 앞에 펼쳐지면 생각보다 더 많은 상상을 해야 해요/ 당신의 청춘을 기억해 드려요, 잊지 말아요 우리의 봄날을”

KT&G 상상유니브 전남운영사무국(사무극장 영광식-전남사무국)이 뮤지컬 '상상 유니-브로드웨이 청춘일기'를 오는 6일 오후 7시 ACC 예술극장2에서 펼친다. 광주청년센터와 함께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들의 평범한 이야기를 극화하는 로컬 프로젝트로 지난 2021년부터 4년째 이어졌다.

이번 공연을 위해 전남운영사무국은 지역 대학생들에게 학업, 군대, 연애 등 사연을 공모받아 시나리오화했다. 출연진은 전공과 무관하게 공개 오디션을 통해 '대학생 배우' 50여 명을 선발했으며 외국인 유학생들도 공연에 무대에 오른다. 주연은 진시연 학생(20대 민지 역·조선대 K-컬처공연기

획학과). 공연은 40대가 된 친구들이 어느 대학교 축제 행사장에서 모여 20대를 회상하는 내용이다. 과거의 사랑, 우정 등을 떠올리면서 추억의 소중함을 각인한다.

한편 '상상유니-브로드웨이 청춘일기'는 지난해 450여 명 관객을 동원했으며 지역 대학생들이 업사이클링 소재로 의상을 만들거나 헤어메이크업까지 담당하면서 극 전반을 구성했다.

윤광식 전남사무국장은 “청년문화 활성화를 위해 기획하고 선보이는 이번 공연은 지역 청년들에게 차별화된 문화예술 경험과 동 세대 간 교류 기회를 제공할 것”이라며 “대학생 청년들이 자신들이 그리고 있는 꿈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다방면에서 지원하겠다”고 했다.

무료 관람, 상상유니브 홈페이지 예매(선착순). /최류빈 기자 rubi@kwangju.co.kr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성공 개최 이벤트

매달 주제 바꿔 SNS에 공개...이벤탈 초성퀴즈 선착순 기념품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공식 인스타그램과 블로그 등 SNS를 통해 매달 다양한 이벤트가 펼쳐진다.

전남문화재단이 진행하는 SNS 이벤트는 내년 9월 개최되는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를 널리 알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활용해 대중과의 소통을 확대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벤트는 매달 다양한 주제와 내용으로 기획되며, 수목비엔날레 공식 SNS에 공지된다. (선착순 또는 추첨을 통해 수목만의 특별 기념품 등을 증정할 예정이다.) 9월의 이벤트는 초성퀴즈이며, 선착순으로 당첨자를 결정한다.

김형수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 사무국장은

“SNS 이벤트는 전통 예술에 친숙하지 않은 이들에게 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의 매력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됐다”며 “인스타그램, 블로그 등을 매개로 젊은 세대와의 소통을 활성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사무국은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블로그, 카카오톡 채널, 유튜브, 페이스북, X 등 다양한 SNS를 운영한다. 비엔날레 소식 외에도 국내외의 수목 관련 알찬 소식들을 전달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제4회를 맞는 2025전남국제수목비엔날레는 2025년 9월부터 두 달간 목표와 진도 등 전남 일원에서 펼쳐질 예정이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데크의 세대교체!”

불에 타지 않고 물에 썩지 않는

논슬립 디자인데크



항매산 전망대

안성 죽산한마당

부여사비 창작지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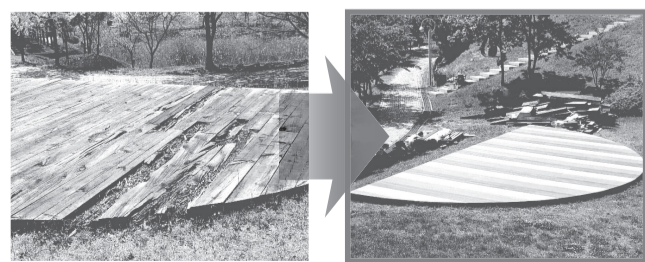
중소벤처기업부
성능인증



품질인증
Q-Mark

기존데크

고강도 디자인데크



습기의 의한 부식, 번거로운 유지관리
기존데크 철거 후 디자인데크 시공
국산 원재료사용으로 경제적이며
재활용이 가능한 친환경 데크!